

격려가 호랑이를 춤추게 했다



KIA 김민호 코치(왼쪽)가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테니스 라켓을 들고 수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바운드가 심한 테니스 공을 통해 순발력을 키우고 있다.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분위'는 올 시즌 KIA 타이거즈의 주요 전력이었다. 선수들이 재미있게 훈련을 하고, 자신있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수비에서 KIA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선수들이 올 시즌 가장 좋아진 부분으로 꼽는 게 수비고, 시즌을 앞두고 가장 우려를 샀던 부분 역시 수비였다. '키스톤 콤비', 중견수가 떠나면서 센터라인의 변화가 불가피했던 시즌. 그러나 올 시즌 KIA는 144경기 84개(경기당 0.58)의 실책으로 NC(83개)에 이어 최소 실책 2위다. 지난해에는 128경기에서 94개의 실책(경기당 0.73)이 기록됐다. 시즌 초반에는 강한올이, 후반기에는 박찬호가 유격수 자리에서 멋진 수비를 선보이기도 했다. 대졸 루키 김호령은 리그에서도 손꼽는 수비 변경으로 외야의 블루칩이 됐다.

KIA에서 첫 시즌을 보낸 김민호 수비 코치 역시 "나도 놀랐다"고 말할 정도로 수비에서 선수들의 성장세가 가장

KIA 올해 144경기 84개... '최소 실책' 전제 2위

경기 중 실수에도 지적 않고 자신감 키우기 주력

지루한 훈련 대신 007·369게임으로 집중력 높여

눈에 띄었다.

김 코치는 "애들이 이렇게 잘해줄지 몰랐다. 처음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걱정했는데 이범호·김민우 등 베테랑들이 몸으로 보여줬고, 어린 선수들도 점점 자신감 있게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처음 선수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풋스텝도, 스로잉도 아닌 '두려움 없애기'.

김 코치는 "수비는 자신있게 해야 한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처음에는 선수들이 눈치를 많이 봤다. 과감하게 자신있게 하라고 했다. 경기 중 실책을 해도 다른 코칭스태프, 다른 선수 누구도 이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도록 했다. 감독님께서는 실책에

대해 수비코치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 수 있도록 해주셨고, 웃고 떠들고 훈련을 하는 것도 다 이해해주셨다"며 "수비를 하면서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다. 실수를 덜하게 하는 게 내 역할이고 임무다. 자신감이 붙으면서 선수들이 놀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웃었다.

수비는 훈련이 중요하지만 수비 훈련은 지루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마치 못해 시간을 채우던 선수들이 올 시즌에는 즐겁게 집중해서 수비 훈련을 했다. 캠프에서는 집중력 훈련의 일환으로 '007 뺑', '369게임'이 등장했다. 새로운 방식의 훈련으로 기본기를 강조하면서도 집중도를 높였다. 김 코치는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수비 훈련에서도 테

니스 라켓을 들었다.

테니스 공을 통한 훈련. 김 코치의 설명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재미만 따지는 것은 아니다. 김 코치는 "공은 발로 잡는 것이다. 바운드에 따라 먼저 움직여서 잡는 것이고 글러브는 공을 막는 것이다. 테니스 공이 바운드가 많다. 그 움직임을 쫓고, 공이 떨어질 때 안정적으로 잡는 것도 배울 수 있다"며 "즐겁게, 집중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깜짝 놀란 시즌이라고는 하지만 프 로에게 만족은 없다.

김 코치는 "숫자로 나온 것보다 보이지 않는 애가 많았다. 실수를 줄이도록 하겠다. 또 공을 잡고 주자를 죽이는 것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생각하는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타자가 발이 빠르면, 주자가 누구인지, 우리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는 선수인지에 따라서 다음 동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리디아 고, 세계 1위 GO!

내일부터 LPGA 타이완 챔피언십 출전

1위 박인비는 국내 대회 참석으로 불참

뉴질랜드 코프 리디아 고(18)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박인비(27·KB금융그룹)와의 타이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기회를 잡았다.

세계랭킹 2위 리디아 고는 한국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을 마친 뒤 푸본 LPGA 타이완 챔피언십이 열리는 대만 타이베이로 향했다.

22일부터 나흘간 미라마르 골프컨트리 클럽(파72)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지난해 박인비가 우승컵을 들어올린 대회다.

하지만 박인비는 같은 기간 국내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 출전하느라 LPGA 투어를 잠시 비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5 시즌 정규대회를 5개 남겨 놓은 상황에서 박인비는 시즌 중반까지 세계랭킹과 상금 랭킹, 올해의 선수 포인트 등 각 타이틀 부문에서 선두를 달렸다.

하지만 지난 18일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이 끝난 뒤 리디아 고는 박인비가 선두를 지키던 각 부문 순위에서 1위로 나서거나 동점을 이뤘다. 리디아 고는 20일 현재

상금과 시즌 평균 타수에서 1위, 올해의 선수상 부문에서는 243점으로 박인비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세계랭킹에서는 12.42점으로 1위 박인비(12.69점)를 근소한 차이로 쫓고 있다.

박인비는 LPGA 투어에 출전하지 않아 시즌 상금과 올해의 선수 포인트를 쌓을



수 없다.

박인비가 출전하는 스타챔피언십도 세계랭킹 포인트가 부여되지만 LPGA 대회보다 배점이 낮다. 반면 리디아 고는 지난 주 대회에서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정교한 아이언샷과 영리한 코스 공략으로 나흘 내내 선두권을 머무르며 공동 4위에 올랐다.

지난 4개 대회에서 우승 두차례를 포함, 톱10에 모두 진입하는 무서운 상승세다. 리디아 고를 견제할 선수는 세계랭킹 3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다.

한국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루이스는 시즌 첫 우승을 노리며 미국여자골프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버리고 있다.

/연합뉴스

"프리미어12 죽을 힘 다해 던지겠다"

디 프로야구 이대은 입국

올 9승9패 평균자책 3.84

일본프로야구에서 뛰는 우완 투수 이대은(26·지바롯데 마린스)이 20일 금요일 귀국했다.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대은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프리미어12'에 출전하는 것과 관련해 "뺏아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며 "죽을 힘을 다해서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대은은 해외파 투수로는 유일하게 다음 달 개막하는 야구 국가대표전 '프리미어12' 국가대표로 뽑혔다. 이대은은 한국

에 머무는 동안 프리미어12 출전을 위한 몸을 만들 계획이다.

그는 잘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항상 있는데 (결과) 따라주지는 않는다"고 답해 웃음을 보였다.

마이너리그 생활을 청산하고 일본에 새 동지를 둔 이대은은 올 시즌 37경기(선발 17경기)에서 9승 9패 평균자책점 3.84를 기록했다. 한국인 최초 일본 무대 10승 고

지를 밟지는 못했지만 준수한 성적을 거뒀



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대은은 "팀으로서나 개인으로서나 많이 아쉽다. 특히 10승을 하지 못한 점이 미련으로 남는다"며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후반기가 팀이 중요한 상황에 놓이더니 생각이 많아서 더 잘하려고 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일본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던 타자로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이대호, 마쓰다 노부히로, 야나기타 유키를 꼽았다.

이대은은 "미국 타자들은 주로 힘이 좋은데, 일본 타자들은 작은 체구의 선수들이 홀런보다는 어떻게든 공을 맞추려는 집요함이 있더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내년에도 지바롯데에서 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가 팀에 더 기여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

/연합뉴스

메시, 다섯번째 '발롱도르' 품을까

FIFA, 후보 23명 공개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를 뽑는 2015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Ballon d'Or) 수상 후보 2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FIFA는 20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호날두, 메시, 레반도프스키, 네이마르(브라질), 루이스 수아레스(우루과이),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스웨덴) 등 정상급 선수를 총망라한 후보들을 발표했다.

프랑스어로 '골든볼'을 뜻하는 발롱도르는 프랑스 축구전문지 '프랑스풋볼'이 1956년부터 시상한 세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2010년부터는 FIFA와 프랑스풋볼이 함께 'FIFA-발롱도르'라는 이름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014년 11월 22일(이하 현지시간)부터 2015년 11월 20일까지의 활약을 기준으로 가려질 이번 발롱도르에서 최대 관심사는 최근 FIFA 발롱도르를 2번 연속 수상

한 호날두가 3연패를 이룰 수 있을지 여부다. 지난 2008년 발롱도르와 FIFA 올해의 선수를 모두 휩쓸었던 호날두는 이후 2012년까지 4년 연속 메시에게 '왕좌'를 내줬다가 2013년부터 다시 발롱도르를 가져왔다.

FIFA는 각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등의 투표를 통해 11월 30일 최종 후보 3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2016년 1월 11일 스위스 취리히의 콩그레스하우스에서 최종 수상자를 발표한다.

한편, FIFA는 '올해의 감독' 후보 10명도 함께 공개했다. 2014-2015시즌 바르셀로나(스페인)의 '트레블'을 이끈 루이스 엔리케 감독을 비롯해 유벤투스(이탈리아)의 '더블'을 이끈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 칠레의 코파아메리카 첫 우승을 이끈 호르헤 삼파올리 감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유희관



손민한

외국인 투수 '장군명군' 배짱 vs 관록 '토종 격돌'

오늘 프로야구 PO 3차전 두산 유희관-NC 손민한 선발

'느림의 미학' 유희관(29·두산 베어스)의 배짱투나, 베테랑 손민한(40·NC 다이노스)의 관록투다.

플레이오프 성패를 가를 분수령에서 유희관과 손민한이 선발 격돌한다. 두산과 NC는 플레이오프 3차전(5전3승제)에 유희관과 손민한이 각각 선발 등판한다

고 20일 공식 예고했다. 3차전은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두산의 홈인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마산구장에서 치른 1차전에서는 두산이 더스틴 니퍼트의 완봉 역투로 7-0 승리를 거뒀고, 2차전에서는 NC가 재크 스투어트의 완투로 2-1로 역전승하고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다.

시즌 130km대 직구로도 갑날 같은 제구를 무기삼아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는 유희관은 올해 정규시즌에서 18승 5패를 거뒀다. NC의 에릭 해커(19승 5패)에 이어 다승 2위에 오르며 두산 마운드의 주축으로 확실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정규시

즌 막판 부진에 빠졌던 데다 넥센과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두산 2-5 패)에서도 4이닝 동안 홈런 두 방을 포함한 7안타를 얻어맞고 3실점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유희관이 지난 17일 열린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동료가 고맙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명예회복을 버린 이유다.

올해 유희관은 NC를 상대로 3경기에 선발 등판해 2승 1패, 평균자책점 2.84를 기록했다. 잠실에서는 6월 14일 한 경기를 던져 6.2이닝 동안 2실점하고 승리투수가 됐다. 다만 유희관이 올해 자신을 상대로 좋은 타격감을 보인 나성범(8타수 4안타 1홈런), 이종욱, 김태균(이상 8타수 3안타 1홈런) 등을 어떻게 공략할지 주목된다.

NC는 백전노장 손민한이 마운드에 오른다.

김경문 NC 감독은 19일 2차전 승리 후 "손민한 경력도 좋고 지금 감이 좋다. 단 기전에서는 느낌이 좋은 선수가 잘한다"며 선발 등판을 예고한 뒤 "두산은 포스트시즌에서 댄 선수들이 많아서 싸울

알고 노림수가 있다. 3차전에서는 잘 막아야 한다"고 손민한의 경험에 기대를 걸었다.

올해 선발로 시즌을 시작한 손민한은 불혹의 나이에도 26경기(19경기 선발)에서 11승 6패, 평균자책점 4.89를 기록했다.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다가 후반기가 들어 선발과 구원을 오갔지만 롯데 소속이던 2008년(12승 4패) 이후 7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쟁겼다. 그는 한 시즌에 두 자릿수 승리를 거둔 KBO 리그 역대 최고령 투수가 됐다.

손민한은 올해 두산을 상대로 5경기에 나서서 2승 2패, 평균자책점 4.81의 성적을 냈다. 잠실 대결에는 세 차례 선발 등판해 1승 1패, 평균자책점 4.50을 기록했다. 김현수(12타수 6안타), 민병헌(10타수 4안타) 등 자신에게 유독 강했던 두산 중심타선을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연합뉴스